

광주시, 자살예방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교육청·중독관리센터·대학병원·주민자치센터 참여

자살예방관리사업 현황·우수사례 등 소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광주시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청, 보건소,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대학병원, 주민자치센터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살예방 국가 정책방향과 선진국의 자살률 감소 사례, 광

주시 자살예방관리사업 종합대책 및 자살예방체계 구축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국내외 정보를 공유한다.

또 광주시 자살현황을 토대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청, 대학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진의 협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정부로부터 정신보건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현장출동서비스 ▲자살 위기자 지

역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응급실 내원 자살시도 차 사후관리 ▲자살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케이트키퍼 양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등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2년 25.4명에서 2015년 21.4명으로 감소해 4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성과를 냈다.

정종제 시 행정부시장은 "다양한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시행해 생명 존중 시립중심 광주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자동 평영정천 천변공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임무를 마치고 진도 팽목항에서 강원 소방대원 5명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임무를 마치고 진도 팽목항에서 강원 소방대원 5명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임무를 마치고 진도 팽목항에서 강원 소방대원 5명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임무를 마치고 진도 팽목항에서 강원 소방대원 5명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여순사건 70주년 피해자 지원 길 열리나

강정희 도의원, 민간인 학생자 위령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70주년을 맞아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 여순사건유족회를 명시했으며, 지원사업의 내용에 피해자 조사와 학술심포지엄, 위령탑 조성,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제주4·3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성대히 치러지는 반면, 여순사건은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기념일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민의 원혼이 짐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전남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민간인 학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치르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특별법 통과의 미중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주시,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한다

21일부터 광주천·영산강변 8곳

광주천과 영산강변 자전거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이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교량 아래 여유 공간에 자전거 통합서비스센터인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마련, 해마다 거울철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 수리, 자전거 안전장구 무료 대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장소는 용산교·중앙대교·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첨단교·신동교·여수대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을 포함, 총 8곳이다. 각 거점터미널에 자전거 전문가 두명을 배치해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44회 운영해 2만 2000여 명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김남균 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이용률 활성화하기 위해 수리 등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거점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 지역 택시 노동자들

"강기정 예비후보 지지"

전국민주택시광주본부와 광주시 지역택시노조가 16일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택시노조 대표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시대의 새로운 광주를 만들 수 있는 후보이고, 우리의 생존권을 믿고 밟길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며 "강 예비후보는 광주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 승강장 개선, 장기 근속자 생활임금 지원, 택시 요금 현실화, 광역교통정 신설 등 택시 노동자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로 비난다"고 역설했다.

동구, 행복학습센터 학습자 195명 모집

광주 동구는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공모한 '2018 행복학습센터 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6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동구거점행복학습센터에서 행방악자, 수재매주정업과정 ▲충장동행복학습센터에서 재판, 바리스타 ▲계립1동행복학습센터에서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화운동행복학습센터에서 노년포럼, 전통놀이지도사과정 ▲지원동행복학습센터에서 웃음치료사, 스피치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동구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동구청 인권청년과 또는 13개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구, 우수기 대비 가로등 안전점검 실시

광주 서구가 이달 말까지 관내 노폭 12m 이상 도로 가로등 11,982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두고 가로등 안전점검을 통해 침수 위험지역 및 각종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점검은 2개조의 순찰팀을 구성하여 주간 점검과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불량 가로등 및 누전선로를 보수하는 한편 제어함 내 불량 누전단위도 교체한다.

특히, 이간 통행량이 많은 노선에 대해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하여 케이블 절연 상태,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제어함 접지 저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 보수 할 계획이다.

남구, 청년센터 명칭 '청년외락'으로 결정

광주청년활동가 중심 무대가 될 남구 청년센터의 명칭이 '청년외락(樂)'으로 결정됐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남구 청년센터 명칭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207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이들이 제안한 명칭에 대해 1·2차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명칭을 선정했다.

심사는 남구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전체 설문투표 점수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한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작 1개와 우수작 2개가 선정됐다.

이중 최고의 점수를 받은 명칭은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안모씨가 제안한 '청년외락(樂)'이었다.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지원 나서

광주 북구가 지역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소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총 사업비 3천 6백만 원을 투입, 창업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구 소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선정 후 3개월 내 창업이 가능한 경우 북구 주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립 운남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광산구립 운남어린이도서관이 영·유아(0~60개월)와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주제의 이번 사업은 영·유아들이 인생의 출발을 책과 함께 시작해 일생동안 독서를 생활화하고, 읊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자는 취지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책들이며 △부모교육 △책꾸리며 배부로 북스타트 사업을 기획했다.

책들이며 부모교육은 광산구 통합도서관홈페이지(lib.gwangsan.go.kr)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접수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 南 新 聞

湖 南 新 聞 이
지 역 공 간
미 래 창 조
정 톤 직 풀 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onam.com

湖 南 新 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인번호 : 광주기장정원
2018년 3월 31일 상속인정승인
사 략 : 정도영(83101-156012)
최 주 소 : 광주 북구 양일동 101로 101동 901호
(연제동, 대광로재비양)

위 망 정도영에 대하여 상속인은民法 제102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民法 제103조(재판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판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4월 17일

공고인 : 공진서, 정유담.
주 소 : 광주 북구 양일동 101로 101동 901호
(연제동, 대광로재비양)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4월 12일
공고기간 : 2018. 4. 17 ~ 2018. 6. 18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측량>>토목 설계>>도시 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업 진 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지
통센터 30동 217호(동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 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 e l : 062)512-0336 H · P : 010-3624-0338